

# OCED 회원국에 근거한 국방비 지출 추세 연구

## (A Study of the National Defense Expense trend based on 30 OECD member states)

고 종 협(Ko Jong Hyub)\*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세계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OECD 가입 30개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국방비 지출추세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방비의 합리적인 지출규모를 예측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방비지출규모는 OECD회원국의 추세에 훨씬 못 미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집행해 왔으며, 향후 국방비의 안정적 수급을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안보 불안정성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가율을 2009년의 3.87%, 2010년의 5.8% 보다 높은 적어도 8.8% 이상의 수준으로 조속히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국가역량에 걸 맞는 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국방비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필수 경비인 동시에 미래 국가생존성 보장을 위한 정말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rst of all analyse the trend of international National Defense Expense of 30 OECD member states and compare it with that of Korea in order to predict an appropriate level of National Defence Expens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se has been exploited at 'considerably low level', hence restore its increasing expense rate from 3.87% in 2009 and 5.8% in 2010 to somewhat higher rate, so as to maintain stable supply and demand of National Defense Expense. The reason to the increase of National Defense Expense is to most importantly ensure 'appropriate amount suitable for its national status' and also that National Defense Expense takes up crucial part for protection of not only life and assets of a people but also of national viability.

**Keywords :** 국방비(National Defense Expense.),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국방비 지출추세(Trend of NDE)

논문접수일 : 2011년 1월 12일 심사(수정)일 : 2011년 2월 22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1년 3월 8일

\* 국방대학교 평가감사실장, 전 국방관리대학원 순환직 교수

## 1. 서론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GDP(국내총생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sup>1)</sup>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일반적으로 국방비 지출 규모는 그 나라의 안보위협과 경제·사회적 여건, 국가의 정책방향, 군사동맹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비율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소해왔다는 것은 여타분야의 국가재정지출에 비하여 그 우선순위가 점점 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인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2015년 12월 이후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대내외적 안보변수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감소추세는 결코 쉽게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1년도 한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5.8%증액된 31조 2,79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번 2011 국방예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보강, 전투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군수지원강화, 장병 복무여건개선,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감시체계, 탐색구조,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등 핵심전력을 보강하면서, 현존 전력의 효과적 발휘를 위해 주요전투장비 가동률향상, 실전적 교육훈련강화 등 전투력 발휘 극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장병 사기·복지를 위하여 병영시설현대화, 처우개선 등 장병 삶의 질과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전

력 확보, 국방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과거의 국방비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금년의 5.8%의 증액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천안함 사태’, ‘연평도 피격사건’ 이후 안보의 중요성이 대폭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방비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sup>2)</sup>이 일반국민의 경우 20.2%, 전문가인 경우에도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한국의 국방비 지출규모가 선진국이나 한국과 여건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진정 ‘과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성 증대와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비의 지출을 현 수준보다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과연 과장된 것이라고 치부만 할 수 있을까?

국방비는 국가안보를 위해 쓰이는 제반경비, 즉 안보라는 공공재를 창출하기 위해 지출되는 필수 경비<sup>3)</sup>이다. 이는 협의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과 영토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고, 광의로는 국익을 적극 수호하고 자국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군사 외교적 수단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규모의 결정은 그 국가의 경제적 부담능력<sup>4)</sup>과 주변의 안보위협정도, 그리고 보유 군사력의 크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해당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는 모든 국민 개인의 생존비인 동시에 미래의 국가생존성 보장을 위한 필수적 지출’

1) 1980년~1990년 평균 4.61%, 1991년~1995년 3.09%, 1996년~2002년 2.62%이며, 2003년 이후 2010년 최근까지의 평균 비율은 2.63% 으로 나타나고 있다(붙임 2. 한국 연도별 국방비지출 현황 참조)

2)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2007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2007.11)에 의하면, 일반국민은 20.2%, 전문가는 8.0%가 “국방비의 규모를 현재보다 줄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백재욱, 성채기, 박주현(2003). “국방부문의 경제적 역할 분석”, 「국방정책연구」 제57호, 가을, pp.65-90.

이 라는 인식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방비의 의미를 국가 간 비교의 편의 등을 위해 ‘협의의 국방비’, 즉 국방부에 편재된 공식적인 국방예산으로 정의하고 OECD 회원 30 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국가 간 국방비 지출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국방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방비 지출규모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추세를 반영하여 미래 한국의 국방비 규모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① 2008년도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성향을 분석하고 ② 한국의 국방비 지출추세와 비교하며 ③ 2020년까지 미래 국방비 지출규모를 예측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OECD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수준을 객관적인 국방지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비지출 추세와 비교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국방비 규모를 추정하고, 미래규모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 1.2 연구방법

분석단위는 ‘국가’로서, 2008년 현재 UN에 가입한 세계 192개국<sup>4)</sup> 중에서 OECD 가입 30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방비지출 규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① GDP(국내총생산), ② 군 병력의 수, ③ 총인구 수, ④ 1인당 국방비, ⑤ 1인당 GDP ⑥ GDP에서 국방비 비중, ⑦ 총인구 중에서 군 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의 7가지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위의 7개 변수들이 회귀 모형식 구성에 모두 투입 될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변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엄밀한 SPSS 통계처리 과정을 통하여 밝히기로 한다. 지금까지 국방비 지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경향은 양적인 분석 방법보다는 주로 주변국 환경여건 등을 고려한 질적 연구와 경제지표에 의한 단순비교 방법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방관련변수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켜 지금까지 계량분석에서 사용해 왔던 변수들보다 더 많은 변수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설명력이 높은 최적의 추세 식을 얻고자 하였다.

## 1.2 연구설계

### 1.2.1 연구가설

본 연구의 작업가설은 “OECD 가입국들의 국방비지출의 규모는 ① GDP(국내총생산), ② 군 병력의 수, ③ 총인구 수, ④ 국민 1인당 국방비, ⑤ 국민 1인당 GDP ⑥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⑦ 총인구 수 중에서 군 병력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로 한다.

일반적으로 국방비 지출규모를 결정짓는 요소는 환경적 요소, 통수권자의 의지, 국민들의 여론과 안보의식, 국정수행의 우선순위차이 등 나라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너무 극단적이거나 편협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OECD가입국으로 한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군사적으로 긴장상태에 있거나, 국내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극단적 성향의 국가들인 북한, 미얀마, 태국, 쿠웨이트, 인도, 파키스탄, 네팔,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수단, 라이베리아, 이란 등의 안보위협 국가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4) 국제연합 가입국은 2006년 6월 28일 ‘몬테네그로’가 가입하면서 192개국이 되었다.

## 2. 선행연구

국방비와 관련한 국내연구의 경우, 그동안 주로 국방비 규모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함성득, 윤기중, 2002; 김영규, 1997), 국방비 지출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구영완, 최상곤, 윤재호, 2006; 백재욱, 유태현, 현성민, 2005; 이은국, 2003), 적정수준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대한 연구(이필중, 2010; 전제국, 2005; 이상목, 2004; 유승남, 목진휴, 2002, 최종철, 1997)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외국연구의 경우에도, 국방비 지출수준과 경제성장, 투자 등과의 관계(Kollias and Paleologou, 2010; Heo, 1998; Mintz and Stevenson, 1995; Deger and Smith, 1983) 등과 국방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Eichenberg and Stoll, 2003; Goldsmith, 2003; Harris, 1986; )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리처드슨(1960)의 ‘작용/반작용 모델’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이 모델에서는 안보위협과 군비증강이 국방비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었다(Lewis, 1960). 리처드슨의 모델은 냉전시대 미소간의 군비경쟁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으며, 지나치게 단순화된 모델이라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국방비규모의 변화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군비경쟁 사례를 경험적으로 다룬 후속 연구들에 의하여 점차 리처드슨의 모델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국방비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들이 대두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연구 중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방비의 지출규모 및 추세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유승남, 목진휴(2001)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비의 규모”에서 1963년 대 이후 38년간 한국의 국방지출규모를 분석하여

국가안보라는 정책분야에 정부가 보여준 정책의 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정책적 의지가 대내적 안보 환경의 변화를 어느 정도나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연구를 통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방지출규모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방비 지출규모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인을 역량요인과 환경요인으로 제시했으며, 역량요인은 다시 경제역량과 정부역량으로 구분하고 환경요인을 안보위협과 정부의 정책의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국방비지출 규모결정의 추정식의 주요변수를 ① 국내총생산(GDP) ②정부총지출 ③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④ 안보위협의 정도(높다, 낮다)로 설정하여 시계열분석의 자기회귀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이 논문을 통해 ‘국방지출의 규모가 물가 상승률이나 정부지출규모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상두(2000)는 “한국방위비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방위비규모의 변화를 1980년대부터 1999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변화과정을 질적 분석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국방예산의 증감과정분석을 통해 ① 한반도의 국제적 안보환경, ② 동맹정책 등 외부적 변화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방위비의 내부적 결정요인분석을 위해 ③ 재정정책의 우선순위, ④ 일반국민의 안보여론분석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2000년도까지 한국의 방위비결정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과 정부의 재정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나 앞으로는 일반국민의 여론이 새로운 영향요인으로 대두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백재욱, 성채기, 박주현(2003)은 “국방부문의 경제적 역할분석”에서 한국 국방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분석, 실증적 분석,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2003년도 한국 국방비 규모 및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왜 국방비의 지출규모에 변화가 있었는지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 변수를 분석하였으며 국방비지출의 구조분석을 통해 수요공급 측면에서 국방비의 국민경제파급효과, 방위산업 육성효과, 안보효과 등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이 논문에서 ‘국방비의 지출은 안보와 평화의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국민경제에 환원되고 있어 정부의 여타지출이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 3. 대상국가 선정 및 국방지표

#### 3.1 대상국가의 선정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적인 국제협력기구중의 하나로 대부분 정치적으로 대의제,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의 원칙을 받아들인 선진국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12월 12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의 설립목적인 경제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무역의 확대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경제정책의 조정, 무역문제의 검토, 산업정책의 검토, 환경문제, 개발도상국 원조문제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 지출의 세계적인 추세를 연구하기 위하여 현재 OECD에 가입하고 있는 국

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3-1>에서 보는 바와같이 2010년 10월 현재 OECD가입국은 30개국으로 아시아, 북미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유럽의 4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 3.2 국방지표의 고찰

##### 3.2.1 직접지표

국방지표는 직접지표와 간접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2>의 ‘직접지표’는 국방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며, 이 표는 OECD 회원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렬 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GDP(국내총생산), 군 병력의 수, 총 인구수 등은 절대적인 수치들이고 국방예산편성 및 집행규모 판단 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직접지표로 분류하였다. <표 3-2> ‘직접지표’에서 국방비지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순으로 높은 지출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이태리 다음으로 7위에 위치되어있다.

그런데, <표 3-2> ‘직접지표’에서 눈여겨 볼 특 징적인 나라들은 영국과 일본이다.

영국은 한국의 28%에 해당되는 19만 1천명의 군 병력을 유지하지만 한국의 약 2.1배가 넘는 529억\$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35%에 해당되는 23만 8,700명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약 1.6배가 넘는 437억\$의 국

<표 3-1> 대륙별 OECD 가입국 현황

구 분	아시아(3)	북 미(3)	오 세아니아(2)	유 럽(22)
OECD 가입국 (30개국)	한국, 일본, 터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 2010년 7월 정식회원국이 된 칠레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은 국방예산을 사용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 3.2.2 간접지표

다음은 간접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표 3-3> '간접지표'는 각국의 군사비 지출의 변

<표 3-2> 직접지표

(2008년 기준)

순위	국 가	국방비 (억\$)	GDP (억\$)	군병력 (만명)	인구수 (만명)	순위	국 가	국방비 (억\$)	GDP (억\$)	군병력 (만명)	인구수 (만명)
1	미국	5710	142646	149.16	31169	16	멕시코	40	10881	24.87	10855
2	영국	592	26524	19.10	6123	17	스위스	38	4914	2.26	754
3	프랑스	531	28517	24.11	6204	18	덴마크	34	3403	2.10	546
4	일본	437	49088	23.87	12729	19	벨기에	34	5036	2.17	1059
5	독일	370	36428	24.57	8226	20	오스트리아	32	4133	3.29	834
6	이태리	299	22984	19.12	5960	21	핀란드	32	2726	2.93	530
7	한국	242	9287	68.70	4861	22	체코	25	2165	1.58	1032
8	호주	151	9914	5.17	2107	23	포르투갈	24	2433	4.40	1068
9	캐나다	141	15018	4.45	3326	24	헝가리	18	1547	3.23	1001
10	스페인	123	16035	13.78	4449	25	뉴질랜드	17	1264	0.91	423
11	네덜란드	100	8706	4.64	1653	26	터키	15	7298	51.49	7392
12	스웨덴	59	4790	2.76	921	27	아일랜드	14	2670	0.85	413
13	폴란드	58	5256	13.33	3810	28	슬로바키아	12	950	1.71	540
14	노르웨이	48	4518	2.34	477	29	룩셈부르크	3	537	0.09	48
15	그리스	48	3557	13.55	1114	30	아이슬란드	-	167	-	32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09(런던 : 국제전략연구소, 2009.2)

<표 3-3> 간접지표

(2008년 기준)

순위	국 가	1인당 국방비	1인당 GDP	국방비/GDP(%)	군병력/인구(%)	순위	국 가	1인당 국방비	1인당 GDP	국방비/GDP(%)	군병력/인구(%)
1	미국	1832	45765	4.00	0.48	16	멕시코	37	10024	0.37	0.23
2	영국	967	43318	2.23	0.31	17	스위스	501	65159	0.77	0.30
3	프랑스	856	45969	1.86	0.39	18	덴마크	623	62342	1.00	0.38
4	일본	343	38563	0.89	0.19	19	벨기에	321	47552	0.68	0.20
5	독일	450	44282	1.02	0.30	20	오스트리아	385	49579	0.78	0.39
6	이태리	502	38562	1.30	0.32	21	핀란드	598	51389	1.16	0.55
7	한국	498	19106	2.61	1.41	22	체코	242	20982	1.15	0.15
8	호주	717	47043	1.52	0.25	23	포르투갈	225	22790	0.99	0.41
9	캐나다	424	45156	0.94	0.13	24	헝가리	181	15448	1.17	0.32
10	스페인	276	36044	0.77	0.31	25	뉴질랜드	397	29873	1.33	0.21
11	네덜란드	605	52673	1.15	0.28	26	터키	20	9873	0.21	0.70
12	스웨덴	641	52033	1.23	0.30	27	아일랜드	334	64649	0.52	0.21
13	폴란드	152	13795	1.10	0.35	28	슬로바키아	222	17586	1.26	0.32
14	노르웨이	1007	94783	1.06	0.49	29	룩셈부르크	623	111596	0.56	0.19
15	그리스	431	31939	1.35	1.22	30	아이슬란드	-	52884	-	-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09(런던 : 국제전략연구소, 2009.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PIRI), 2009

화정도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또 다른 변수들로서, 다중 회귀분석결과 이러한 변수들의 투입이 국방비 규모변화의 정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은 ‘국방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큰 순서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국방비지출규모는 단순히 국방비, GDP(국내총생산), 군 병력의 수, 총인구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 뿐 만 아니라 이에 부가하여 각국이 처한 상이한 안보환경, 이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의지, 국방정책의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혼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1인당

국방비, 국민 1인당 GDP,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총인구 수 중에서 군 병력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 등은 간접적이고, 비록 미세하기는 하지만, 국방비 지출에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변수이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3-3> ‘간접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1인당 국방비가 1,832\$로 세계 1위이며,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4.00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영국은 1인당 국방비가 967\$로 2위인 노르웨이 1107\$, 3위인 프랑스 856\$에 이어 4위이다. 한국의 1인당 국방비

<표 4-1> OECD회원국 국방지표

순위	구분	1인당 GDP(\$)	국방비 (억\$)	GDP (억\$)	군병력 (만명)	인구수 (만명)	1인당 국방비(\$)	국방비/GDP(%)	군인수 /인구(%)
1	룩셈부르크	111596	3	537	0.09	48	623	0.56	0.19
2	노르웨이	94783	48	4518	2.34	477	1007	1.06	0.49
3	스위스	65159	38	4914	2.26	754	501	0.77	0.30
4	아일랜드	64649	14	2670	0.85	413	334	0.52	0.21
5	덴마크	62342	34	3403	2.10	546	623	1.00	0.38
6	아이슬란드 <sup>5)</sup>	52884	-	167	-	32	-	-	0.00
7	네덜란드	52673	100	8706	4.64	1653	605	1.15	0.28
8	스웨덴	52033	59	4790	2.76	921	641	1.23	0.30
9	핀란드	51389	32	2726	2.93	530	598	1.16	0.55
10	오스트리아	49579	32	4133	3.29	834	385	0.78	0.39
11	벨기에	47552	34	5036	2.17	1059	321	0.68	0.20
12	호주	47043	151	9914	5.17	2107	717	1.52	0.25
13	프랑스	45969	531	28517	24.11	6204	856	1.86	0.39
14	미국	45765	5710	142646	149.16	31169	1832	4.00	0.48
15	캐나다	45156	141	15018	4.45	3326	424	0.94	0.13
16	독일	44282	370	36428	24.57	8226	450	1.02	0.30
17	영국	43318	592	26524	19.10	6123	967	2.23	0.31
18	일본	38563	437	49088	23.87	12729	343	0.89	0.19
19	이탈리아	38562	299	22984	19.12	5960	502	1.30	0.32
20	스페인	36044	123	16035	13.78	4449	276	0.77	0.31
21	그리스	31939	48	3557	13.55	1114	431	1.35	1.22
22	뉴질랜드	29873	17	1264	0.91	423	397	1.33	0.21
23	포르투갈	22790	24	2433	4.40	1068	225	0.99	0.41
24	체코	20982	25	2165	1.58	1032	242	1.15	0.15
25	한국	19106	242	9287	68.70	4861	498	2.61	1.41
26	슬로바키아	17586	12	950	1.71	540	222	1.26	0.32
27	헝가리	15448	18	1547	3.23	1001	181	1.17	0.32
28	폴란드	13795	58	5256	13.33	3810	152	1.10	0.35
29	멕시코	10024	40	10881	24.87	10855	37	0.37	0.23
30	터키	9873	15	7298	51.49	7392	20	0.21	0.70

는 498\$로 미국 1,832\$의 28.9%, 노르웨이 1,007 \$의 54.7% 수준이다. 일본은 1인당 국방비가 343\$로 한국의 498\$에 비해 적게 지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군인의 수가 전체인구의 0.19%에 불과하여 한국의 1/7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많은 1인당 국방비 즉 병력대비 국방비를 사용하는 나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4.0%), 한국(2.61%), 영국(2.23%), 프랑스(1.86%), 호주(1.52%)의 순서를 보였으며, 국민 총인구 수 중에서 군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1.41%), 그리스(1.22%), 핀란드(0.55%), 노르웨이(0.49%), 미국(0.48%) 순으로 나타났다.

## 4. OECD 국방비 추세분석

### 4.1 OECD 회원국

<표 4-1> 'OECD 회원국 국방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 중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순이며 미국은 45,765\$로 14위에 위치 되어있고, 한국은 19,106\$로서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총인구 중에서 군인의 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0.5% 이내로 나타나는 등 평균 0.2%~0.3%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1.41%로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무려 5~6배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30위에 위치하고 있는 터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병력규모인 51만4천9백 명의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1/2수준이 안 되는 9873\$이며 1인당 국방비는 20\$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OECD 회원국들의 국방지표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느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해 왔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현재의 국방비 지출규모가 과다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살펴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다음에서는 OECD 회원국들의 국방지표를 가지고 회귀식을 산출해보기로 하자.

## 4.2 회귀식 산출

### 4.2.1 SPSS<sup>6)</sup>를 이용한 다중 회귀분석<sup>7)</sup>

7개의 변수 모두를 수용하는 Enter 분석 방법으로 얻은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2>의 '모형 요약'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에서 다중 상관계수는 0.975이고 결정 계수는 0.933으로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urbin-Waston 값은 1.502로 독립성가정에 무리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 모형 요약

Model	R	R <sup>2</sup>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Durbin-Waston
1	0.975	0.951	43.5	1.502

5) 아이슬란드는 1945년 이후 중립국 유지

6) SPSS 12.0 패키지 사용, Enter방법 실시.

7) 김두섭, 강남준,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2000), pp.96-217 참조.

8)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 검색방법은 일반적인진단법, 잔여분산에 의한 방법, 고유근 분석과 분산분해비율에 의한 검색방법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잔여분산에 의한 검색방법을 실시하였다. 잔여분산이란 (1-R<sup>2</sup>)를 말하는데 잔여분산의 값이 0이거나 0에 아주 접근하면 이는 극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통상 R Square 값이 0.95~0.99일 경우 분산팽창계수(VIF) 값은 10.3~50.30의 분포를 이루고 Root VIF 값은 3.20~7.09를 나타낸다. 이때 분산팽창계수(VIF)의 값이 10이상일 때는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번 연구의 통계처리결과에서 <표 4-3>에서와 같이 R<sup>2</sup>



〈표 4-3〉 분석결과종합

모델	F value	R Square	Adj-R Sq	제외 변수
1	52.743	0.951	0.933	없음

〈표 4-3〉 ‘분석결과 종합’과 〈표 4-4〉 ‘회귀계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외변수가 없이 7개의 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모델이다.

R Square 값이 0.951로 나타났는데 이 값이 바로 다중회귀 결정계수로 이 값은 추정된 회귀식에 포함되어있는 독립변수 X1~X7을 적용하여 종속변수인 Y의 분산의 약 95.1%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F값은 충분히 크며(F = 52.7439) 유의수준이 0.000로 거의 0에 가까우므로 ‘OECD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좋은 식’이라고 할 수 있다.

#### 4.2.2 회귀계수와 회귀모형

〈표 4-4〉 ‘회귀계수’에서 “β”는 다중회귀분석에서 출력된 비표준화 회귀계수이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추정된 회귀 모형식은 식 <4-1> 회귀모형

〈식 4-1〉 회귀 모형식

$$Y = - 47.059 + 0.011 X1 + 2.040 X2 - 0.007 X3 + 0.295 X4 - 0.002 X5 + 49.892 X6 - 88.0395 X7$$

식과 같다. 다중공선성 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R<sup>2</sup> 값은 0.951로 분산팽창계수(VIF) 값은 3.20에 가까우므로 임계수치인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에는 위 ‘회귀 모형식’을 적용하여 OECD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추세를 알아보고 국방비를 추정해보기로 한다. 본 통계분석은 7개의 독립변수를 SPSS 12.0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시 이상점 (Outlier)으로 확인된 미국과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칠레는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 4.3 미래 국방비 규모 예측

##### 4.3.1 국방비 규모

〈식 4-1〉 회귀식을 적용하여 향후 2020년까지

〈표 4-4〉 회귀계수<sup>9)</sup>

구 분	Under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유의확률
	β	Std. Error	Beta	
상수	-47.059	66.068	-	0.048
GDP(X1)	0.011	0.002	0.782	0.000
병력의수(X2)	2.040	1.386	0.197	0.015
총인구수(X3)	-0.007	0.010	-0.150	0.045
1인당 국방비(X4)	0.295	0.122	0.446	0.026
1인당 GDP(X5)	-0.002	0.001	-0.280	0.018
국방비/GDP(X6)	49.892	50.336	0.151	0.033
군인수/총인구(X7)	-88.039	53.557	-0.154	0.017

값은 0.951로 확인결과 VIF 값은 3.20에 가까우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 강성현, 『SPSS 통계자료분석』 (2004), pp.285-299 참조.

〈표 4-5〉 한국과 OECD 회원국 비교

구분	Y	X1	X2	X3	X4	X5	X6	X7	추세값
	대한민국 추세(억\$)	GDP	병력수	인구수	일인 국방비	일인 GDP	국방비 비중	병력의 비중	OECD 추세
2008	242 (26조6,490원)	9287	68.70	4861	498	19106	2.61	1.41	273
2009	258 (28조5,326원)	9677	68.70	4874	510	19854	2.57	1.41	278
2010	268 (29조6,039원)	10083	65.30	4889	523	20625	2.54	1.41	284
2015	327	12387	57.80	4928	595	25135	2.50	1.40	289
2020	328	15216	50.00	5002	673	30417	2.47	1.40	295

의 국방비를 예측해 보았다. 여기서 ‘국방비’라 함은 세계 OECD가입 30개국의 국방비 지출추세를 준용했을 때 지출되는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의미한다.

우선 동 분석의 기준점이 되는 2008년도의 국방지표는, <표 4-5> ‘한국과 OECD 회원국 비교’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방비지출 총액은 242억\$, GDP는 9,287억\$, 병력의 수는 68만 7,000명, 인구는 48,610,000 명, 1인당 국방비는 498\$, 1인당 GDP는 19,106\$, GDP 중 국방비 비중은 2.61%, 인구수 중 병력의 비중은 1.41%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이미 현실적으로 도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수치는 국방부 및 통계청의 발표 자료<sup>10)</sup>를 근거로 실제수치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방비 증가율은 최근 10년간의 실제자료와 최근의 2009년도 7.1%, 2010년 3.8%를 고려해 볼 때 2020년까지 최소한 3.8%에서부터 7.1% 사이의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 4.3.2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추세 비교

다음은 <표 4-6> ‘한국의 실제 국방비지출과

추세와 비교’에서는 회귀식의 추세치와 최근 3년간 실제로 지출된 우리나라의 국방비지출 DATA 비교를 통해 국방비지출규모의 과다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표에서는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2010년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OECD 가입국의 국방비 지출추세에 비하여 훨씬 적은 국방비를 지출해 왔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2010년 수준과 같이 국방비 증가율을 3.87%로 유지할 경우, 2014~1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OECD 추세를 따라 잡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는 과거 10여 년간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의 추세를 크게 밑도는 수준의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예산을 지출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군 조직분야 관리에서 예상되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4-6> ‘한국의 실제국방비지출과 추세 비교’에서는 2008년도의 OECD 회원국의추세를 반영한 한국의 국방비가 273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2008년도 한국의 국방비 실제지출액<sup>11)</sup>은 26조 6490억 원(242억\$)이었으며,

10) 통계청은 2008년도 한국의 인구를 4천8백6십만7천명으로 집계 하였으며, 이후매년 0.3%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5년도 까지 예상수치를 발표했다. 병력구조는 2006년 68.1만에서 2010년 8월 65.3만 명으로 감축, 이후 매년 15000~18000명씩 감축할 예정이다. (“평화와 안정을 위한 소중한 투자” : 국방부 2011.1)

〈표 4-6〉 한국의 실제 국방비지출과 추세 비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sup>12)</sup> (억\$)	9287	9677	10083	10507	10948	11408	11887	12387
병력수 <sup>13)</sup> (만명)	68.70	68.70	65.30	63.80	62.30	60.80	59.30	57.80
총인구 <sup>14)</sup> (만명)	4860	4874	4889	4898	4908	4916	4923	4928
1인당 국방비	498	510	523	537	550	565	580	595
1인당 GDP	19106	19854	20625	21452	22307	23206	24146	25135
국방비/ GDP	2.61	2.57	2.54	2.50	2.47	2.43	2.40	2.37
병력수/ 총인구	1.41	1.41	1.41	1.40	1.40	1.40	1.40	1.39
회귀식(Y)	273	278	284	289	295	301	307	314
실제지출액	242	258	268	278	289	300	312	324
비교	-31	-20	-16	-11	-6	-1	+4	+10

2009년도의 경우 258억\$, 2010년도에는 268억\$을 각각 지출한 바 있다. 결국 2008년도에는 한국의 국방비지출규모는 OECD 가입국 추세에 비하여 31억\$, 2009년도에는 20억\$, 2010년도에는 16억\$ 씩 을 각각 적게 지출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 ‘OECD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추세’에서는 OECD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추세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국방비지출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6>과 <그림 4-1>의 분석결과에서 한국은 2008년 이후 3년간 OECD 회원국추세에 비하여 31억\$~16억\$ 적은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재처럼 OECD 회원국에 비해 국방비를 적게 지출해 온 추세는 앞으

로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2015년까지 지속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특별한 국방비 증가편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1980년 GDP 대비 6.01%를 유지하던 국방비 지출이 2010년 2.79%까지 감소되면서 현재까지 계속 누적되어온 부정적 영향까지 겹쳐지게 될 경우 향후 국방관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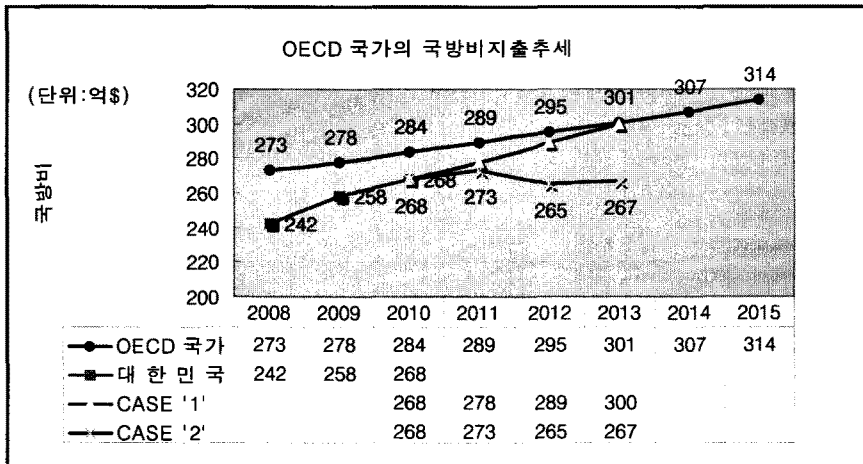
또한, <그림 4-1>에서 CASE ‘1’(국방예산 증가율이 3.87% 이상)의 경우처럼 국방비증가율, 경제성장률, 군 병력 수, 인구증가율 등이 현행계획과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약 3년이 되는 2013년 경 부터는 301억\$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OECD 회원국들의 2008년 현재의 지출추세에 근

11) 2008년 적용환율 1\$=1103.4원

12) 경제성장률은 2004 4.16%, 2005 4.0%, 2006 5.2%, 2007 5.0%, 2008 2.2%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9 이후부터는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 4.2%를 적용.

13) 병력수는 국방2020계획에 따라, 2020까지 50만으로 감축예정이며, 국방비 증가율 3.87%~7.1%유지를 가정.

14) 인구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평균치 0.3% 적용(통계청, 2010)



(그림 4-1) OECD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추세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만일 CASE '2'(국방예산 증가율이 3.87%이하)의 경우처럼 하향곡선을 그리는 경우에는 현재 보다 더 OECD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추세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의 누적된 부분들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폭사태'처럼 발현될 경우 국방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게 될 것이다.

#### 4.3.3 분석결과 요약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해왔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총인구 중 군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0.5% 이내로 평균 0.2%~0.3%의 적은 수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병력의 비율이 총인구의 1.41%로 OECD회원국들의 평균에 비하여 무려 5~6배에 이르는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비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향후 예상되는 역내 불안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소한 OECD회원국들의 추세를 반영한 국방비의 안정적 수급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가율을 2009년의 3.87%에서 적어도 2007, 2008년도의 경우처럼 8.8%이상으로 조속히 환원시켜야하며, GDP대비 국방비비율도 2009년의 2.79%에서 최소한 3% 이상으로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 5. 결론

국방비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국가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평화로운 때에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국방비는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제시하듯이 2008, 2009, 2010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OECD회원국의 추세에 훨씬 못 미치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집행되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1980년도의 6.01%에서 점차 감소되면서 2010년도에는 2.79%수준으로 낮게 집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국방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한 국방력 건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 국방

비는 국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초석이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6.25 발발 6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아직도 한국이 한미방위체제하에서 국방안보의 상당부분을 한미동맹체제유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자위적 방위역량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금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과 11월 23일의 연평도 피폭사태는 우리들에게 그동안 거의 잊고 지내다시피 해왔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 해·공군의 '조기경보 시스템과 함정의 대잠무기체계, 대 포병화력 시스템 등을 과학화, 고급화 했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국가역량에 걸맞는 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국가 안보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비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최우선적 필수경비인 동시에 미래의 국가생존성 보장을 위한 정말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단년도(2008년도) 통계를 활용한 특정시점의 횡단면적 분석이 갖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규모를 OECD 회원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여러 영향변수를 적용하여 국가간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그동안 상당히 낮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력과 제반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국방비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강성진, "적정국방비수준 및 배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1991)pp.6-16.
- [2] 구영완, 최상곤, 윤재호, "국방비 지출,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성장의 동태적 인과관계", 「국방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Vol.49, No.2, pp.105-126.
- [3] 목진휴, 유승남,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비의 규모", (한국정책학회보, 2001)
- [4] 민진, "국방예산에 관한 의사결정", 「국방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89)
- [5] 백재옥, 성채기, 박주현, "국방부문의 경제적 역할 분석", 「국방정책연구」 제57호(2003), 가을, pp.65-90.
- [6] 백재옥, 유태현, 현성민,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 2000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19권 제2호(2005), pp.37-67.
- [7] 유승남, 목진휴,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비의 규모", 2002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2), pp.245-263.
- [8] 이상목,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쟁점과 정책적 함의", 「군사논단」 37권 (2004), pp.58-69.
- [9] 전제국,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략환경과 국방비』 (서울 : KIDA Press, 2005)
- [10] 함성득, 윤기중, "한국의 국방비 요인의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2002)
- [11] 국방부, 『열정과 노력으로 만드는 국방비』, 계획예산관실(2009)
- [12] 국방부, 『국방백서』, 정책기획관실(2008)
- [13] 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2009).
- [14] Alex Mintz and Randolph T. Stevenson, "Defense Expenditures, Economic Growth, and the Peace Dividend"(1999),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39, No.2 (Jun. 1995), pp.283-305.

- [15] Altesoglu, H.S. and Mueller, M.J., "A Theory of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n: Payne, J.E. and Sahu, A.P.(eds.),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Oxford, Westview Press, 1993), pp.41-53.
- [16] Biswas, B. and Ram, R., "Military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 An Augmented Model and Further Eviden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4(1986), pp.361-372.
- [17] Biswas, B..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in: James E. P. and Sahu, A. P.(eds.),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Oxford, Westview Press, 1993), pp.223-235.
- [18] Benjamin E. Goldsmith, "Bearing the Defense Burden, 1886-1989: Why spend mor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7, No. 5 (Oct, 2003), pp.551-573.
- [19] Christos Kollias and Suzanna-Maria Paleologou, "Growth, Investment and Military expenditure in the European Union-15",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37, No.2(2004), pp.228-240.
- [20] Chowdhury, "Analysis of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1991). 35(1).
- [21] Deger, S. and Sen,S, "Military Expenditure and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7, No. 2 (Jun. 1993), pp.335-353.
- [22] Deger, S. and Sen, S., "Military Expenditure and developing Countries," (2009) in : Hartley, K. and Sandler, T.(eds.), *Handbook of Defense Economics*, Vol. I(1995), pp.275-31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www.imf.org](http://www.imf.org)).
- [23] Geoffrey Harris, "The Determinants of Defense Expenditure in the ASEAN Reg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3, No. 1 (Mar. 1986), pp.41-49.
- [24] Landau, D., "The economic Impact of military expenditur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Vol. 1138 (Washington, DC: World Bank, 1993).
- [25] Olson, M, and R. Zeckhauser., "An Economic Theory of Allia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1996) 48:266-279.
- [26] Richard C. Eichenberg and Richard Stoll, "Democratic control of defense budget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7, No.4 (Aug. 2003), pp.399-422.
- [27]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PI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09) ([www.milexdata.spiri.org](http://www.milexdata.spiri.org)).
- [28] UK Heo, "Modeling the Defense-Growth relationship around the Glob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5 (Oct. 1998), pp.637-657.

붙임 1. OECD 회원국의 국방지표

(2008년 말 기준)

순위	구분	국방비 (억\$)	GDP (억\$)	군병력 (만명)	인구수 (만명)	1인당 국방비 (\$)	1인당 GDP (\$)	국방비/ GDP (%)
1	미국	5710	142646	149.16	31169	1832	45765	4.00
2	영국	592	26524	19.10	6123	967	43318	2.23
3	프랑스	531	28517	24.11	6204	856	45969	1.86
4	일본	437	49088	23.87	12729	343	38563	0.89
5	독일	370	36428	24.57	8226	450	44282	1.02
6	이태리	299	22984	19.12	5960	502	38562	1.30
7	한국	242	9287	68.70	4861	498	19106	2.61
8	호주	151	9914	5.17	2107	717	47043	1.52
9	캐나다	141	15018	4.45	3326	424	45156	0.94
10	스페인	123	16035	13.78	4449	276	36044	0.77
11	네덜란드	100	8706	4.64	1653	605	52673	1.15
12	스웨덴	59	4790	2.76	921	641	52033	1.23
13	폴란드	58	5256	13.33	3810	152	13795	1.10
14	노르웨이	48	4518	2.34	477	1007	94783	1.06
15	그리스	48	3557	13.55	1114	431	31939	1.35
16	멕시코	40	10881	24.87	10855	37	10024	0.37
17	스위스	38	4914	2.26	754	501	65159	0.77
18	덴마크	34	3403	2.10	546	623	62342	1.00
19	벨기에	34	5036	2.17	1059	321	47552	0.68
20	오스트리아	32	4133	3.29	834	385	49579	0.78
21	핀란드	32	2726	2.93	530	598	51389	1.16
22	체코	25	2165	1.58	1032	242	20982	1.15
23	포르투갈	24	2433	4.40	1068	225	22790	0.99
24	헝가리	18	1547	3.23	1001	181	15448	1.17
25	뉴질랜드	17	1264	0.91	423	397	29873	1.33
26	터키	15	7298	51.49	7392	20	9873	0.21
27	아일랜드	14	2670	0.85	413	334	64649	0.52
28	슬로바키아	12	950	1.71	540	222	17586	1.26
29	룩셈부르크	3	537	0.09	48	623	111596	0.56
30	아이슬란드	-	167	-	32	-	52884	-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09(런던 : 국제전략연구소, 2009. 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PIRI), 2009

붙임 2. 한국의 연도별 국방비지출 현황(1981-2011)

(금액: 억원)

연도별	국 방 비		국방비비중(%)		전력투자비		경상 운영비	
	금 액	증가율(%)	GDP대비	재정대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80	22,465	46.2	6.01	34.7	9,246	47.0	13,219	45.6
1981	26,979	20.1	5.54	33.6	10,571	14.3	16,408	21.4
1982	31,207	15.7	5.60	33.5	11,815	11.8	19,392	18.2
1983	32,741	4.9	4.99	30.8	12,216	3.4	20,525	5.8
1984	33,061	1.0	4.40	29.6	12,939	5.9	20,122	2.0
1985	36,892	11.6	4.39	29.4	15,047	16.3	21,845	8.6
1986	41,580	12.7	4.24	30.1	17,738	17.9	23,842	9.1
1987	47,454	14.1	4.12	29.5	21,453	20.9	26,001	9.1
1988	55,202	16.3	4.03	30.0	24,652	14.9	30,550	17.5
1989	60,148	9.0	3.89	27.3	25,993	5.4	34,155	11.8
1990	66,378	10.4	3.56	24.2	27,863	7.2	38,515	12.8
1991	74,764	12.6	3.31	23.8	29,776	6.9	44,988	16.8
1992	84,100	12.5	3.27	25.1	32,132	7.9	51,968	15.5
1993	92,154	9.6	3.17	24.2	34,173	6.4	57,981	11.6
1994	10조0,753	9.3	2.96	23.3	36,116	5.7	64,637	11.5
1995	11조0,744	9.9	2.78	21.3	39,712	10.0	71,032	9.9
1996	12조2,434	10.6	2.73	20.8	42,662	7.4	79,772	12.3
1997	13조7,865	12.6	2.81	20.7	48,833	14.5	89,032	11.6
1998	13조8,000	0.1	2.85	18.3	50,902	4.2	87,098	2.2
1999	13조7,490	0.4	2.60	16.4	52,304	2.8	85,186	2.2
2000	14조4,774	5.3	2.50	16.3	53,437	2.2	91,337	7.2
2001	15조3,884	6.3	2.47	15.5	52,141	2.4	101,743	11.4
2002	16조3,640	6.3	2.39	14.9	54,756	5.0	108,884	7.0
2003	17조5,148	6.5	2.42	14.8	57,379	4.8	117,769	8.2
2004	18조9,412	8.1	2.43	15.8	62,930	9.7	126,482	7.4
2005	21조1,026	11.4	2.60	15.6	72,987	16.0	138,039	9.1
2006	22조5,129	6.7	2.66	15.3	58,077	7.7	167,052	6.3
2007	24조4,972	8.8	2.72	15.5	66,807	15.0	178,165	6.7
2008	26조6,490	8.8	2.76	15.2	76,813	15.0	189,677	6.5
2009	28조5,326	7.1	2.79	14.5	86,147	12.2	199,179	2.7
2010	29조6,039	3.8	2.79	9.9	92,476	7.3	203,563	2.2
2011	31조2,795	5.8	-	10.0	96,613	6.1	216,182	5.8

※ 출처 : 『국방백서』 2008, 『열정과 노력으로 만드는 국방비』 국방부 (2009.11)  
: 『우리의 국방비』 국방부 (2011.1)



## ■ 저자소개 ■

고 종 협(E-mail: goshue@hanmail.net)

1981 육군사관학교 전쟁역사학과 졸업(학사)  
2003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석사)  
2005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2005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순환직 교수  
2009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과정 수료  
현재 국방대학교 평가감사실장

관심분야 국방정책, 보훈정책, 북한외교정책, 한미동맹, 국방비

<주요저서 / 논문>

- 주한미군관련 분쟁해결절차 개선방안에 관한연구(2003)
- 회귀분석을 이용한 미래국방비규모 예측(2005)
-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연구
- \* 연합모형(ACF)의 적용을 중심으로(2009. 서울행정학회)